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여야 대치 격화

양곡관리법 이어 취임후 2번째 "지역간 갈등...국민 건강 불안감" 국힘 "갈라치기 날림 입법" 엄호 민주 "국민과 맞서는 길 선택"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건 의료계 지역 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법안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지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속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해당 법안 처리 강행을 '의료계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한 '날림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타협안' 마련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13개 지역 단체를 나열한 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파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중요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라고 고도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요구에 따라 예상되는 간호협회와 야권 반발에 대해 "(재의) 표결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 논의가 어떻게 할지 등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2년 차 접어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협치 거부' 선언을 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철저히"라고 요구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박광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비인도적 행위 용납될 수 없다" 젤렌스카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젤렌스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지 연대를 전한다"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특히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무력 사용 및 비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젤렌스카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며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헤르손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젤렌스카 여사로부터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요청은 없었다"며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데 한국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접견 중에 (대통령 부부) 초청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면 우리 정부가 잘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尹 "장관 2년은 해야...국면 전환용 개각 없다"

상반기 중 개각 없을 듯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첫 개각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여주기식 인위적 물갈이'는 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인사 원칙에 따라 적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큰 폭의 개각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중폭 개각이 압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받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이 있을 거라는 일부 정치권 전망과 언론 보도와는 달리 현재까지 특별한 개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쇄신을 명분으로 참모를 제물 삼아 국면 전환을 노리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윤 대

통령 고유의 인사 철학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일찌감치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연초 개각설을 일축했다.

취임 1주년을 전후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가 바뀌거나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고, 아니면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졌다고 사람을 바꾸는 건 윤 대통령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장기 과제 위주의 국정 로드맵도 이런 기류가 형성된 한 이유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등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장기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0대 국정과제의 뼈대를 이루는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하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난제들이다.

개혁 드라이브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부처 장관을 수시로 교체하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이 반감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실적으로는 좁은 인재 풀도 고민거리일 수 있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군에 속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심하면서 후보군이 더 협소해진 분위기가.

인사 검증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여야간 첨예한 대치 정국에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경우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 인사청문회 제도 아래에서 적인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실제 일부 부처는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염두에 두고 두 자릿수나 되는 인사를 몰미 검증했으나, 결국 적인자 낙점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71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